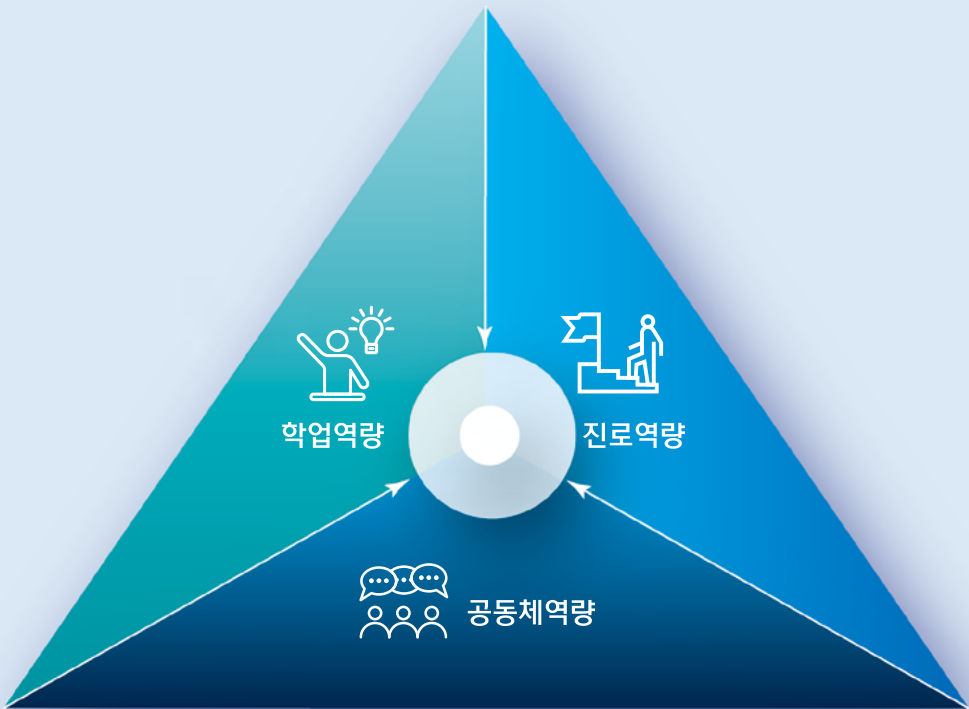


「2021년 건국대 · 경희대 · 연세대 · 중앙대 · 한국외대 공동연구」

new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2021년 건국대 · 경희대 · 연세대 · 중앙대 · 한국외대 공동연구」

new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연구책임자 임진택 (경희대학교)

공동연구자 이정림, 방유리나 (건국대학교)

이승아, 조민경 (경희대학교)

박정선, 안미연 (연세대학교)

차정민, 장준호 (중앙대학교)

김창민, 이수영 (한국외국어대학교)

Contents

목 차

인사말	03
책자 활용 시 유의사항	04
들어가며	06
학업역량	10
진로역량	20
공동체역량	34
나오며	46
참고문헌	50

Greeting

인사말

2017년 6개 대학은 공동연구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실제 평가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후 전국 여러 대학이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유사한 공통 평가요소로 활용하였고,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유용한 지침서로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추천서가 폐지된 데 이어, 2024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도 폐지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기재 항목이 축소되고, 수상·독서·봉사(개인) 등은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실시가 예정되어 교육과정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5개 대학 공동연구진에서는 전형자료에 내용이 나오지 않아 평가가 어려운 요소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평가항목 간 중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을 새롭게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하고 노력한 경험이 평가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어 학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교와 대학 입시가 연계되어 학점제형 대입 제도, 학점제형 학생부전형이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2022. 2

연구책임자 경희대학교 임진택



책자 활용 시 유의사항

이 책자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5개 대학-건국대·경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의 공동연구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2022)를 통하여 제시된 연구 내용 중 서류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소와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구보고서와 본 책자 파일은 5개 대학 입학홈페이지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결과 도출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는 면접평가가 아닌 서류평가를 목적으로 하며,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 역량**』의 세 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평가요소의 설정 배경이나 개념 정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개별 평가항목의 세부평가 내용 및 이러한 세부평가내용이 실제 평가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각 평가요소의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자에 제시된 내용은 5개 대학의 정책연구 결과이므로, 이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안이 각 대학의 실제 평가에서 활용될 때는 이번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의 실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평가요소의 설정 배경이나 개념 정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개별 평가항목의 세부평가내용 및 이러한 세부평가내용이 실제 평가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각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는 평가항목과 세부평가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평가요소나 평가항목별로 각각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서류를 바탕으로 학교 활동 사실 및 교사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하나의 활동이 여러 평가항목에서 평가될 수 있으며, 세부평가내용이 모두 우수해야 그 해당 평가요소가 높게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 책자에 제시된 내용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자료일 뿐 일반화하여 이해하거나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2007년 입학사정관제로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은 기존의 정량적 평가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전형 자료에 기반한 종합적 평가로 다면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학교 교육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충분히 제공하려 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성과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전형의 특성 상 평가기준이 대학별로 다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은 평가요소를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해 왔다. 본 연구에 참여한 5개 대학 역시 2016년과 2017년의 두 차례에 걸친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 공통 평가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입 제공용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 및 내용이 축소되고, 교사추천서 및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등 학생부종합전型的 평가 대상이 되는 전형자료의 정보 제공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한 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와 고교학점제로 인해 현행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의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입 및 고교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은 지난 두 번의 연구를 통해 정립되었다. 2016년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공통기준과 용어 표준화 연구」(건국대학교 외, 2016)에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용어를,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의

공동연구인 「대입전형 표준화방안 연구」(건국대학교 외, 2018)를 통해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을 표준화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델파이조사, 전문가 심층면접(FGI)을 통해 도출되었다.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7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현황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전국 797개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항목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 교사 및 교육청 소속 15명, 대학입학사정관 13명으로 총 28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심층면접(FGI)은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안’에 대해 대학 입학관계자 6명, 장학사 및 고교 교사 5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은 고교 교육의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되, 현실적으로 평가 가능한 요소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의 4가지 평가요소는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의 3가지 역량 중심 평가요소로 개정하였다. 『학업역량』에서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는 ‘학업태도’로, ‘탐구활동’은 ‘탐구력’으로, 『진로역량』에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로 분리하고, 기존 연구의 평가항목인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합하여 ‘전공’ 대신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변경하였다. 『공동체역량』에서는 기존의 『인성』 및 『발전가능성』 평가항목 중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준수’, ‘리더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의 표준안을 3가지 평가요소별로, 평가요소의 도출 배경과 정의, 하위 평가항목의 정의 및 세부평가내용을 각각 제시하였다.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항목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역량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학업태도
	탐구활동		탐구력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진로역량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인성	협업 능력	 공동체역량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성실성과 규칙준수
	도덕성		리더십
	성실성		
발전가능성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1. 학업역량	10
	01. 학업성취도	12
	02. 학업태도	15
	03. 탐구력	17
	2. 진로역량	20
	01.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24
	02.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28
	03.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30
	3. 공동체역량	34
	01. 협업과 소통능력	40
	02. 나눔과 배려	42
	03. 성실성과 규칙준수	43
	04. 리더십	44



1. 학업역량

2017년 연구에서는 ‘학업역량’을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그리고 ‘탐구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학업역량이 대학 입학 후 고등 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학업역량의 정의는 이전 연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지난 연구 이후 나타난 교육과정의 변화와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학생부 기재사항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업역량의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항목들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였다.

첫 번째 평가항목인 ‘학업성취도’는 2015개정교육과정 도입으로 이전 연구 때와는 다른 성적 평가체계가 도입되었으나, 교과성적이란 정량지표를 반영하여 학업성취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는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 된 성적 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세부 평가항목은 일부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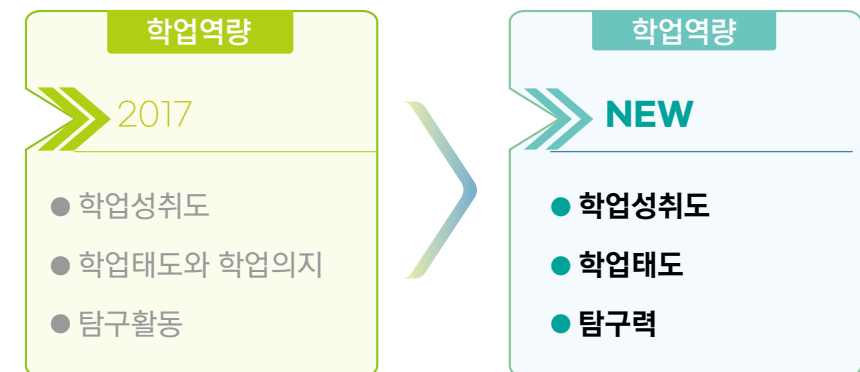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는 ‘학업태도’로 단순화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나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학생부의 기재사항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학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기존의 평가항목 중 ‘학업의지’를 삭제하였다.

마지막으로 ‘탐구활동’은 ‘탐구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활동은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힘을 쓴다는 뜻이다. 학습활동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순 활동 참여보다는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탐구활동보다 탐구력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학업역량’은 기본 정의를 거의 그대로 유지할 뿐 아니라, 평가항목의 변화도 크지 않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변하고 학업성취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변하더라도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은 중등교육 이수자들에게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성취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학업역량’은 단순히 정량적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전 연구와 비교했을 때, 학업역량의 평가항목 간 변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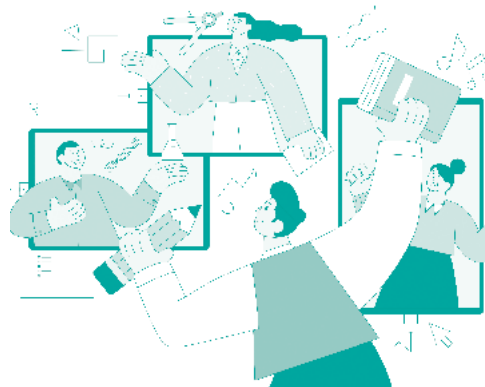
학업역량 평가항목의 변경



지난 연구에서 학업성취도는 석차등급 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해 산정한 학업능력 지표와 교과목 이수 현황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기존의 정의가 석차등급이나 원점수 등을 포함하여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2015개정교육과정 시행을 계기로 성취도가 대학에 추가로 제공되고 있어 학업성취도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정량지표 위주의 학업성취도가 지원자의 학업역량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나, 정성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업역량 외에도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학문적 발전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등급과 원점수 또는 성취도 뿐만 아니라 이수과목, 이수자 수, 평균과 표준편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진로선택과목에서는 성취도와 성취도 비율이 추가로 제공되는데



이 또한 평가에 활용된다.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데 기본이 되는 기초교과(국어·수학·영어)와 탐구교과(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과(예술·체육,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 교양 등)의 성적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소위 주요 교과목의 성적만 우수한 경우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 학업능력,
추세적 발전 정도,
그리고 희망 전공과의
연계 등을 기본으로 한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 학업능력, 추세적 발전 정도, 그리고 희망 전공과의 연계 등을 기본으로 한다. 종합적 학업성취도는 3년간의 종합적 학업성취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재학 기간 중의 평균적 학업성취도에 의해 평가된다. 다만, 교과성적은 지원자가 속한 집단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에 의해 선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자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데는 종합적 학업성취도 외에도 학년이나 학기에 따른 성적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평가의 관점은 학문적 발전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평가자들은 지원자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에 관심이 많다. 이런 점에서 성적의 향상 정도는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진로선택과목을 주로 3학년에 이수함으로써 단순히 등급 성적에만 의존할 경우 3학년 성적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에 따라

성적 체계가 다른 점을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입의 특성상 졸업연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업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 3년간의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하나의 평균 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평가자들은 다양한 과목 구분에 따라 학기별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 따라서 평가 시에는 전 과목이나 기초교과의 과목을 통해 전체적인 학업능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희망 전공 분야의 과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병행한다.

학업성취도의 정의와 세부 평가항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었던 점은 학업성취도가 정량적 평가 위주로 흐르는 것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에서 학업성취도는 단순히 정량적 지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학업성취도를 Z-점수나 등급 등과 같은 정량지표 위주로 정의할 경우 고교 현장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성적 위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데 단순히 등급이나 성취도를 활용한 정량적 지표만을 반영한다면, Z-점수와 같이 상대적으로 정밀한 수단들을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전공 관련 심화과목이나 전문교과의 반영 여부 등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전 연구에서 ‘학업태도와 학업의지’를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 가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부의 기재사항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학업에 대한 의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기존의 평가항목 중 ‘학업의지’는 삭제하고 평가항목을 ‘학업태도’로 단순화하였다. 따라서 정의도 기존 정의에서 의지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단순화하였다.**

학업역량 평가에서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하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래서 학업태도를 살펴볼 때는 자기주도성에 기반한 학업에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 도전 정신과 실험 정신, 지적인 호기심, 각종 교내 활동에 대한 열정 등이 확인될 때 의미 있게 평가한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업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교과 수업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어떤 교과목을 어떻게 선택하여 이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향후 도입될 고교학점제도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전제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어떻게 학습하였는지는 학업태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교내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에 참여도와 노력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보여준 경우, 동아리활동이나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보이는 진취성과 무엇인가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배우려는 자세 등에서 평가자는 자기주도적 학업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자신이 처한 교육환경 속에서 스스로 배움을 확장하고 토론이나 실험, 과제수행, 집단학습 등을 통해서도 창의성이나 자기주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업과 과제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주도적인 노력, 열의와 관심, 다양한 탐구 방법의 모색 등 의미 있는 지적 성취에 대해 주목한다. 교과 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 수단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이다. 교과 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분야의 서적을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그 내용이 토대가 되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와 지적 호기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독서활동 기록을 담고 있는 독서활동 상황의 경우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아 직접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할 것이다. 이 항목들에서는 학생의 지적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교사의 진술을 토대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요소들과 연관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학업역량을 평가할 수도 있다.

학업역량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자기주도성은 지적 호기심을 발휘해 보았는지, 또는 스스로가 어떤 하나에 심취해 보았는지 등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기주도성은 탐구력, 지적호기심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지적 호기심과 관련된 요소들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도 잘 드러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과 관련된 지적 성장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평가자는 학교 수업과 과제수행 과정에서 학생이 보여준 학업 능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 학업에 대한 열의와 관심, 성취 수준,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 등에 주목하여 지적 호기심을 평가한다. 수업의 다양한 모습과 과제 수행 과정, 즉 토론과 탐구·연구 활동, 글쓰기, 실험 실습 등을 통해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지적 성취뿐만 아니라 지적 호기심까지도 추론할 수 있다.

지난 연구에서 탐구활동은 ‘어떤 대상에 대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평가항목인 ‘탐구활동’은 ‘탐구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정의도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변경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학습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학업 관련 탐구력을 학업역량 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활용한다. **탐구력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지칭한다.** 학업역량은 교과 학습뿐 만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활동, 글쓰기, 탐구 및 연구 활동, 실험 실습, 교내대회 참여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탐구력은 고차원적인 학업역량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탐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탐구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실수업을 통한 성장 과정에 주목한다. 교과 시간에 수업 내용에 대해 연계적 질문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는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수업을 수강하였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탐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거나 자신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확장해 나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교과 영역에 대한 탐구력 평가는 특정 지식을 잘 사용할 줄 아는지와 탐구력을 신장한 과정도 평가하는데 수행평가는 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수행평가는

탐구력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탐구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학생 스스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적용 또는 활용하는 능력까지 평가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탐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탐구 역량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주제 탐구,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한 자율활동을 통해 꾸준한 탐구 의지를 보인 활동을 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술 동아리

활동에는 교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토론, 실험, 연구, 탐구 활동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탐구 역량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처럼 탐구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과 관련 활동이나 실험 실습, 탐구,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문적 열정이나 지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된 ‘학업역량’의 평가항목들에 대한 정의와 세부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 학업역량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

1) 학업성취도

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예: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의 교과성적은 적절한가? 그 외 교과목(예: 예술·체육, 기술·가정/정보, 제2 외국어/한문, 교양 등)의 교과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2) 학업태도

정의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3) 탐구력

정의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 등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교과와 각종 탐구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2. 진로역량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공적합성’을 ‘진로역량’으로 평가요소를 변경한 점이다. 전공적합성은 입학사정관제 도입 때부터 지금까지 평가요소로 활용해왔는데 여러 논란이 있었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이 다르고 고등학교 교육이 교과 기초학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공적합성을 학업역량의 하위요소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학교 교육에서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경험하도록 권장한다는 점에서 전공적합성을 독립적인 평가요소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었다. 실제 다수의 대학들은 전공적합성을 학업, 인성 등과 독립된 평가요소로 활용하거나 계열적합성·전공계열적합성·전공준비도 등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들은 학업역량이나 발전가능성 내의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평가요소에서 아예 제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약 82%가 전공적합성을 다른 평가요소와 독립적인 평가요소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공적합성’을 의미하는 유사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전공적합성(78.6%)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공계열적합성(75.7%), 계열적합성(71.5%), 전공준비도(6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에서는 전공적합성의 취지를 살리되, ‘전공적합성’이 대학의 희망 전공에 맞춰 학생들의 활동과 경험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업성취도의 인지적 역량과 태도적 관점의 비인지적 역량으로 나누는 안, 입학사정관의 평가 체계나 흐름에 맞게 학업성취도와 활동역량으로 나누는 안 등과 같이 근본적인 새로운 방안과, 입학사정관제 시기부터 사용해 온 전공적합성의 취지를 살리되 계열적합성으로 개념을 확장하여 학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과 교사의 진학 지도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진로(계발 또는 탐색)역량’이 제시되었다.

최종적으로 문·이과 융합교육, 2015개정교육과정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고교학점제 등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평가요소의 개념 확장성을 고려하여 ‘진로역량’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평가요소인 전공적합성이 대학 평가자 관점이라면, 진로역량은 수험생인 고등학교 학생 관점이라고 하겠다.

2017년 연구에서는 전공적합성을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진로역량을 ‘자신의 진로와 전공(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로 정의하여, 전공 대신에 진로로 개념을 확장하였다. 대학의 전공(계열) 맞춤형 활동을 강조한 전공적합성보다는 장래 희망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의미하는 진로역량이 넓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델파이 조사에서 진로라는 개념이 주는 모호성으로 인해 입시 준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평가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진로역량을 ‘자신의 진로와 전공(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로 정의하여, 전공 대신에 진로로 개념을 확장하였다. 대학의 전공(계열) 맞춤형 활동을 강조한 전공적합성보다는 장래 희망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의미하는 진로역량이 넓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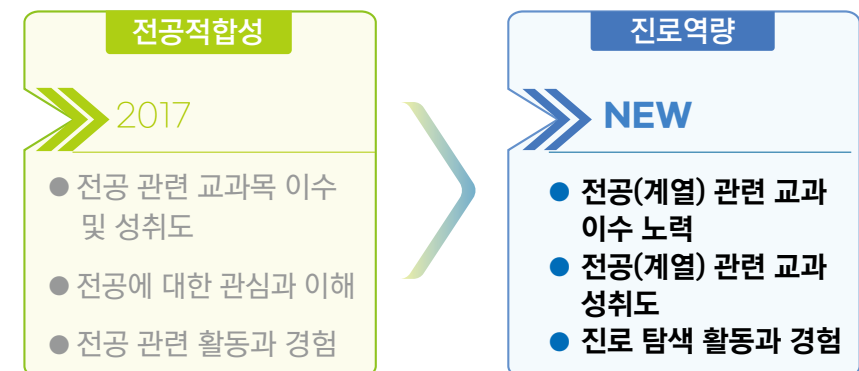
이에 평가항목을 기존 연구의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로 분리하였다.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학습과정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이 중요해지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세밀한 잣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희망 전공(계열) 관련하여 적절하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 공동교육과정 등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도 살피게 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진로활동과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기존 연구의 평가항목인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합하여 ‘전공’ 대신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변경한다. ‘진로’로의 명칭 변경은 고교 입학 후 조기에 진로를 정해야 하고 대학의 특정 전공에 맞춰서 전공 탐색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부담을 줄이고, 희망 전공과 무관하게 학교 활동 전반에서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하도록 하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이번 ‘진로역량’으로의 개편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2022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인재상인 ‘자기주도성’을 체득하고 2017년 연구에서 발전가능성의 평가 항목이었던 ‘경험의 다양성’을 실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학업역량이 고교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학업 수준과 능력을 말한다면, 진로역량은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수학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성장잠재력에 초점을 둔다고 하겠다.

이러한 진로역량의 세부항목으로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제시하였다. 이전 연구와 비교했을 때, 진로역량(전공적합성)의 평가항목 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진로역량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변경



대학 전공을 수강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는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고등학교가 개설하고 있는가? 학생에게 과목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는가? 대학은 학교가 지정해서 과목을 이수한 학생과 학생이 선택하여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수한 과목의 난이도와 수준, 이수 단위(과목) 수를 평가해야 하는가? 등이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평가에 대한 대학의 고민이다.

먼저 학생들이 전공(계열) 관련 과목을 선택할 기회가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2015 개정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공통과목을 통해 기초소양을 키우고, 학생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해당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이다. 예고된 고교학점제, 2022 개정교육과정도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게 배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둔다. 2015개정교육과정과 다가올 고교학점제 도입과 같은 고교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생의 희망 진로계열에 맞는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교사수급문제 등으로 학교 내 과목 개설이 되지 않은 학생을 위해 학교 밖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의 방향은 대학에게 학생의 과목 선택을 평가에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진로역량의 첫 번째 평가항목인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세부평가내용으로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과 이수 과목 수, 교과목 학습단계(위계)에 따른 선택과목(일반/진로) 이수 여부,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추가 노력(예: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수업, 소인수과목 등) 등을 제시하였다.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수하였는가를 평가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대학에서 요구한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이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작업이 선행되고,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내되어야 한다. 대학의 지원 전공(학과)별로 필요한 과목을 제시할 수도 있고, 전공(학과)보다는 넓게 인문/사회/상경/자연/공학/의학/예술/체육 계열별로 필요한 과목을 제시할 수도 있다. 대학마다 전공마다 다를 수 있어, ‘전공(계열)’으로 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공(계열)과 관련해 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 전공(학과)별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상세하게 지정하기보다는 인문/사회/상경/자연/공학/의학/예술/체육 등 계열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전공(학과)의 경우 계열별 지정 과목에 지원 전공(학과)별로 일부 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예컨대 인문/사회/상경계열은 국어와 사회과목을 더 이수하고, 자연/공학/의학은 수학과 과학과목을 더 이수하고, 영어는 공통적으로 모두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자연/공학/의학계열은 수학과 과학을 더 이수하면서 지원학과에 맞는 과학II 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학계열은 물리학, 생명과학계열은 생명과학II, 화학계열은 화학II, 의학계열은 생명과학II와 화학II를 이수하는 것이다.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이수하였는가도 평가한다. 이수 과목 수와 이수 단위의 적정성 등과 같은 양적 측면도 평가 대상이 된다. 자연계열 지원자의 과학 이수 과목 수를 예를 들어보자. 선택과목으로 2학년 생명과학 I 과 화학 I, 3학년 지구과학 I, 생명과학II 이상 총 과학 4과목을 이수한 학생과 물리학 I / II, 화학 I / II, 생명과학 I / II, 과학과제연구 이상 총 과학 7과목 이수한 학생이 있다면, 교과성적이

비슷할 경우 과학 기초소양을 고려할 때 후자인 7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더 나은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물론 대학은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학생의 선택 과목 수도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참조하여 학생에게 과목 선택의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고, 학생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과목을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평가는 달라야 한다. 학교가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대학이 지정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수 단위가 적정한지도 살핀다. 단지 이수 과목 수만 많다고 충실한 학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학교가 과목의 이수 단위를 적정하게 배정해 학생이 학습을 충실히 하였는지를 평가한다.

학생도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희망 전공(학과) 관련 필수 과목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수업, 동아리, 독서 등 개인적 학습 노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관계없이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희망 전공(계열) 관련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찾아 듣거나 난이도나 수준이 높아 수강을 기피하는 소인수과목을 수강한다면 자기주도적인 탐색 과정을 고려해 학습 태도와 의지를 높게 평가할 것이다.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을 학습 단계(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희망 전공(계열) 관련 과목을 선택한 이수 경로를 면밀하게 살피고, 학습 단계(위계)에 맞게 난이도와 수준을 높여 탐구하는 과정을 평가한다. 대학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유형의 특성에 맞게 과목을 개설하는지를 살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는 보통교과 과목을 얼마나 개설하고 학생에게 얼마나 선택권을 부여하는가, 보통교과를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 선택권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살필 필요가 있다. 진로선택과목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반드시 난이도 높은 전문교과나 심화과목일 필요는 없다. 보통교과의 충실한 이수와 깊이 있는 학습을 해나가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에서 전문교과의 진로선택과목 개설 등 경쟁식 다양화는 지양해야 한다. 단순한 전문교과 이수 보다 이수과목의 내용과 활동의 충실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학교가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진로선택과목으로 개설된 전문교과를 평가에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특목고와 특성화고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에서 특성화 교육과정을 반영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진로선택과목 못지않게 대학 수학을 위한 학업 기초역량을 쌓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도 중요하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일반선택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희망 전공(계열) 관련한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있는지를 연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지원 전공(학과) 수학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쌓는데 의미가 있다. 실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전공(계열) 관련 필수 이수 과목은 국어와 수학, 탐구, 영어 등 주요 교과에서 몇 과목 정도 더 들었느냐의 차이 정도일 것이다. 마치 지원 자격처럼 대학 전공(계열)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만 이수한다면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대학도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전공(계열)과의 연계를 위해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공(학과)별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이수과목을 지정하면 지원자격화 될 수 있다. 대학마다 학과마다 이수해야 할 과목이 제각각이면 학생의 과목 선택에 혼란이 따를 수 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학은 계열 수준 정도에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원칙은 단순히 희망 전공(계열)과 관련 과목을 이수했느냐 이수 과목 수가 얼마나 되느냐 보다 어떤 과목을 들더라도 얼마나 충실하게 들었느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역량의 ‘학업성취도’와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가 평가과정에서 **이중으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미적분이나 물리학Ⅱ 과목의 교과성적은 전체 교과 성적을 평가하는 학업역량의 평가항목에서도 평가하지만, 자연계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를 평가하는 진로역량의 평가항목에서도 평가한다.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세부평가내용으로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 수준, 전공(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 내 일반선택과목 대비 진로선택과목의 성취수준 비교 등을 제시하였다.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수준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별 석차등급/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단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앞장의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에서 살펴본 전공(계열)과 관련된 이수 과목의 교과 성취가 어떠한가를 살핀다.



교과 성취수준 평가 방법은 학업역량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다를 바 없다.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석차등급과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단위와 수강자수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진로선택과목은 석차등급 없이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고려한 성취도(A/B/C), 원점수와 평균, 이수단위와 수강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진로선택과목의 도입에 따라 단순히 교과성적을 100% 전산 처리하는 교과전형보다 교과성적을 정성평가하는 ‘교과종합평가’의 필요성이 커졌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모든 선택과목(일반/융합/진로)이 성취평가제로 성취도(A~E)가 제공되어 ‘교과 정성평가’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전공(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 내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의 성취수준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동일 교과 내 일반선택과목의 석차등급과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교과 성취수준을 살핀다. 예컨대 1학년 공통과목 과학 1등급, 일반선택과목 물리학(수강자수 100명) 2등급, 진로선택과목 물리학(수강자수 20명) A(성취도별 분포비율 95%)인 경우 세 과목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물리학의 성취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과목별 수강자수와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을 고려하여 석차등급과 성취도를 비교할 때 학업 성취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학습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반선택과목을 기피하고 등급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진로선택과목을 다수 선택하도록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학습 부담이나 석차등급의 유·불리 때문에 희망 전공(계열)별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의 선택을 기피하지 않도록, 동일 교과 내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의 교과 성취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전공’탐색에서 ‘진로’탐색으로 개념을 확장한 점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지금까지 자주 들던 질문이 ‘고교 재학 중 꿈이 바뀌면 평가에 불리한가’ 이었다. 전공적합성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그리고 발전가능성의 ‘경험의 다양성’ 평가항목을 통합하여 ‘진로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변경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태도와 알고 있는 정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은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배운 점’, 발전가능성의 경험의 다양성은 ‘학교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과정 및 결과’로 정의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진로희망과 무관하게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명칭을 바꾸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로 정의하였다.

세부평가내용으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경험, 전공(계열)에 대한 탐색 활동과 경험 등을 제시하였다.

학교 교육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를 평가한다. 학교 교육에서 교과 지식 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나 학교 내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다양한 사회 영역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지 살펴본다.

희망 전공(계열)과 관련이 있든 그렇지 않든 학교 교육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 시각을 넓혔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의 독서 활동 기록을 통해서도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았는지를 살펴본다. 예술·체육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화적 감수성, 신체적 능력을 키웠는지를 볼 수 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을 통해 이론 성취를 평가한다. 궁극적으로 대학은 학교 교육에서 이뤄진 자기주도적인 성찰과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을 평가한다. 논어(論語) 옹야 편에 공자가 말한 지(知)·호(好)·락(樂) 중에서 호(好)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공자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고 하였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더 만족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미래에는 어떤 분야를 전공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점점 더 예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예컨대 경영학과 지원자라면 ‘CEO’, ‘사회적 기업 CEO’, ‘마케터’,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에이전트’, ‘예술경영자’, ‘문화콘텐츠 기획자’, ‘경영컨설턴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제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외환딜러’, ‘자산관리사’ 등 그 꿈만큼이나 활동도 다양하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수업활동(발표, 토론, 주제탐구)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 등에서 희망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파악할 수 있다.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은 학교 교육에서 활동과 경험으로 나타난다.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으로 발표, 토론, 주제탐구, 과제 연구, 실험 등 학생참여형 교과활동(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에 지원 전공에 관련한 교과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학생이 수행평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원 전공에 대한 주제탐구 활동을 하기도 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으로 남기도 한다. 호텔리어를 희망한 학생이 영어 수업시간에 호텔리어가 왜 되고 싶고, 호텔산업의 전망 등에 대해 영어로 발표하면서 진로희망을 표현하기도 한다.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 하겠다. 학생들은 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탐색 활동을 하고 있다. 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에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체험활동을 소개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 희망에 적합한 동아리에 가입하기도 하고, 진로체험활동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지원 전공(계열)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진로역량은 전공에 대한 관심이 없는 학생 보다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이 대학 입학 후 전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 잠재력에 맞춘 평가라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정리된 ‘진로역량’의 평가항목들에 대한 정의와 세부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 진로역량

자신의 진로와 전공(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1)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예: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수업, 소인수과목 등) 선택과목(일반/진로)은 교과목 학습단계(위계)에 따라 이수하였는가?

2)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정의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의 석차등급/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단위, 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취 수준은 적절한가? 전공(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 내 일반선택과목 대비 진로선택과목의 성취수준은 어떠한가?

3)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정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가?



3. 공동체역량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공공의 선을 추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개인이 행복한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은 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청소년기는 성인기보다 사회화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며 공동체를 지향하는 행동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긍정적인 학교생활, 삶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윤영·백아롱, 2021).

학생부종합전형이 다른 대입전형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학생의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질,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정성적인 평가요소를 설정하여 반영한다는 점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각종 공동체 활동 속에서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나눔을 실천한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이는 대학생활 중에 그리고 졸업 후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10여 년 간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된 점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학교 내 멘토활동 등의 나눔 활동이나 외부 기관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수업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모둠학습, 협력학습 등이 활발해지면서 학생 간의 협력이 전체 수업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아리 활동, 자율 및 진로활동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의 성과와 결과물을 창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등 고등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다른 대입전형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학생의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질, 잠재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정성적인 평가요소를 설정하여 반영한다는 점이다.

2019년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정책 발표에 따라, 2024학년도 이후 전형자료에서 교사추천서에 이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등 학교생활기록부 축소 및 항목 폐지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전형 자료의 전반적 축소는 학교 내 공동체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학업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 중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던 경험을 지원자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이며 유일한 평가 자료라는 점에서 대학에서 이를 평가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러한 평가의 어려움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간소화와 추상적인 평가항목의 구체화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번 공동연구의 핵심적인 개선방향으로 제기되었다. 기존 공통 평가요소에서는 비학업적인 측면을 ‘인성’과 ‘발전가능성’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2017년 공동연구에서 4가지 평가요소 중 기존 ‘인성’의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발전가능성’의 리더십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공동체역량’으로 재구성하였다.



‘공동체역량’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이라는 뜻의 ‘공동체’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의 ‘역량’을 합친 개념이며,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진에서 구성하여 제시한 개념이다.

학술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체역량은 시민의식, 참여의식, 대인관계, 협업능력, 자기관리, 다문화수용성, 배려, 관용, 공정성, 문제해결 등의 서로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백순근 외, 2017). 교육부의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의 6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핵심역량은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는 개인과 사회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에서 길러야 할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중 공동체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2015). 또한, 교육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는 ‘학생역량’을 개발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국가 교육과정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공동체역량에 해당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공동체성, 준법성, 봉사성 지표), 세계시민성(국가정체의식, 지구공동체의식 지표)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본 연구에서는 2017년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기존 연구 결과를 참조하고, 설문 조사와 델파이조사, 전문가 FGI 협의 등을 통해 공동체역량을 정의하고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교사가 학생을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입학 과정에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자료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체역량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기존에 사용했던 ‘인성’이라는 용어는 교육적 의미가 높지만 너무 넓은 영역을 포괄하며 추상적이고 측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의 성품’으로 규정되고 있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과정에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개인적 차원’의 의미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이라는 명칭을 폐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발전가능성’ 평가요소를 해체하고, 공동체 차원으로 평가의 범위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공동체역량’으로 명칭을 통합하여 변경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과정에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개인적 차원’의 의미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이라는 명칭을 폐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발전가능성’ 평가요소를 해체하고, 공동체 차원으로 평가의 범위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공동체역량’으로 명칭을 통합하여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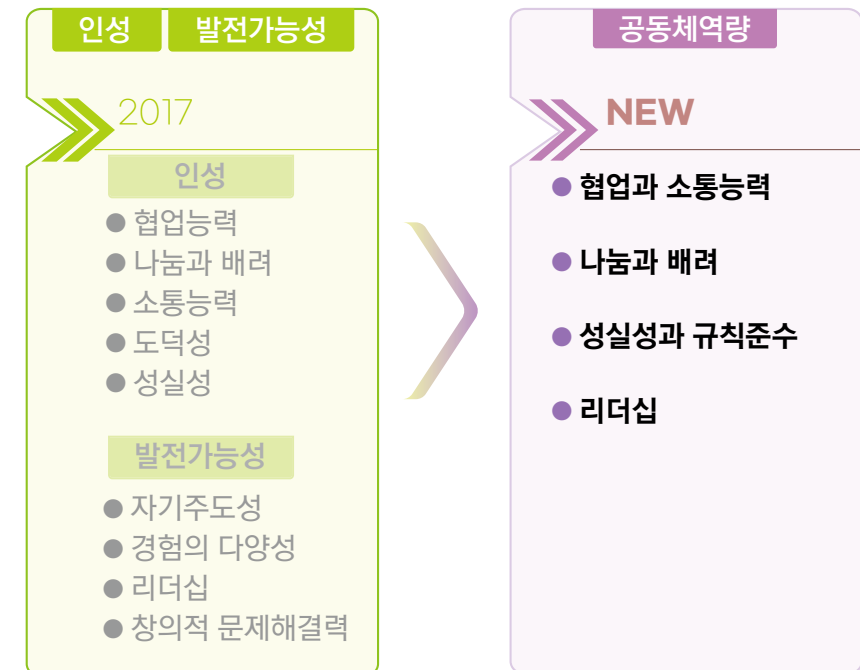
‘공동체역량’의 평가항목으로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채택된 평가항목은 2017년의 평가표준안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이 있다. 이전 평가요소인 ‘인성’, ‘발전가능성’의 평가항목은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의 평가항목에 비해 평가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평가항목별로 중복적으로 평가하기 쉽고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통해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가항목을 조정하였다.

기존의 ‘인성’ 평가요소의 평가항목은 통합하거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평가항목을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협업능력’과 ‘소통능력’을 ‘협업과 소통능력’으로 통합하였다. ‘나눔과 배려’ 항목은 그대로 두었다. 기존의 ‘성실성’은 ‘성실성과 규칙준수’로 재편했는데, 기존 평가항목인 ‘도덕성’을 삭제하고 이를 ‘규칙준수’로 대체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통해 평가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였다. 또한, 기존 ‘발전가능성’ 평가요소를 없애고, ‘발전가능성’ 중 ‘리더십’ 평가항목을 ‘공동체역량’ 영역으로 가져왔다.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가 아닌 전 영역에 걸친 상위의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두지 않고 3가지 평가요소에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17년의 연구와 비교하여 변화된 점은 다음 그림과 같다.

공동체역량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의 변경



협업과 소통능력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협업은 공동체 역량을 기르는 기본적인 인성으로서,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동학습과 단체활동 등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협업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이끌어 내는 동기로서 ‘공동체의 목표’를 인식하는 부분과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내는 과정의 ‘상호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정의에 포함하였다.

“**‘협업과 소통능력’은 두 가지 정의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의한 것은 아니며, 평가항목 개수를 줄이고 실제 평가에 용이하도록 두 가지 개념을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통능력은 학교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를 토대로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제대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협업과 소통능력’은 두 가지 정의를 하나로 통합하여 정의한 것은 아니며, 평가항목 개수를 줄이고 실제 평가에 용이하도록 두 가지 개념을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부평가내용은 첫째,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평가한다.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진로 활동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내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동료 학생을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모습이 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교사 평가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둘째,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학생중심의 다양한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공동의 과제 작성이나 발표 등의 다양한 협력 과정으로 성취한 결과물이 제시된다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활동이 자발적으로 지속되거나 빈도가 높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지를 평가에 반영한다. 대학의 평가자는 학교생활 중 소통능력의 좋은 예시를 학교생활기록부 곳곳을 통해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미래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 공동체가 조화로운 삶을 이루며 성장하기 위하여 나눔과 배려는 중요한 덕목이다. 이에 ‘나눔과 배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나눔과 배려에 대한 경험은 아직까지 봉사활동의 양이나 지속성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교사, 동료 등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새로운 세부평가내용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봉사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학교생활 속에서 나눔의 실천과 생활화, 양보와 배려를 실천한 경험,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생활 속에서 나눔의 실천과 생활화는 학급, 동아리, 수업 등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경험을 평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 멘토 역할과 같이 자신의 능력을 나누고 동료의 성장을 도운 경험,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대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노력, 교내 행사나 축제와 같은 학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하는 활동 등이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에 걸쳐 생활화되어 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양보와 배려를 실천한 경험은 상대의 요구, 의견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당장 자신에게 득이 되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타적인 노력을 보인 경험이 있다면 긍정적인 평가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셋째, 일방적인 나눔과 배려의 자세가 아니라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고 나의 입장과 같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나눔과 양보, 배려 등을 실천해 왔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성실성과 규칙준수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대부분이 성실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성’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항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를 반영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의 ‘도덕성’ 개념을 ‘규칙준수’로 개정하였다. 설문조사나 전문가 자문에서 도덕성이 평가항목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만으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하였다. 이에 도덕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보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여 학교생활 속에서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용어 ‘규칙준수’로 개정하여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세부평가내용은 첫째, 교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를 평가한다. 학급의 구성원, 수업 및 동아리 활동 등에서 역할을 부여 받고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는지 확인한다. 수업출석이나 단체활동 참여 등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에 책임감 있게 수행하였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맡은 역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는지 확인하여 평가한다.

둘째,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규칙을 준수하고 있어서 변별이 쉽지 않으므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사례가 기재되어 있으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물론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기소개서의 폐지로 인해 학생의 입장에서 기술한 자료가 없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이나 부당한 규칙을 변경하려는 노력 등 이전보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리더십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리더십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도록 돕는 영향력 있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고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 상황, 모둠별 학습 상황, 동아리활동 등 교내 여러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협력, 화합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행위를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세부평가내용은 첫째,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을 평가한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계획하고, 구성원들을 움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학생회 회장이나 학급 반장, 동아리 회장이라고 하여 반드시 리더십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자신이 맡은 역할과 리더로서의 자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도록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성원들이 좋은 리더로 인정하고, 그 의견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정리된 ‘공동체역량’의 평가항목들에 대한 정의와 세부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요소 : 공동체역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1) 협업과 소통능력

정의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가? ●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가?

2) 나눔과 배려

정의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생활화한 경험이 있는가? ● 타인을 위하여 양보하거나 배려를 실천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3) 성실성과 규칙준수

정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4) 리더십

정의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세부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는가?



나오며....

최근 몇 년을 사이에 두고 대입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추천서가 폐지되었으며,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일부 항목이 삭제되거나 대입 자료로 활용이 제한되었다. 또한, 2015개정교육과정이 시행 중이며, 향후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예고되어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런 대입 환경의 변화에 맞춰 2017년 6개 대학의 공동연구에서 제시하였던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와 평가항목들을 재구조화하여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을 재구조화하는 기준으로 대입정책의 변화,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 평가자료의 변화, 평가 가능성, 평가요소 혹은 평가항목 간 독립성, 교육적 의미 등을 고려하였다. 전형자료에 내용이 나오지 않아 평가가 어려운 요소를 제외하고, 요소간 항목간 중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전달하는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구성하려 노력하였다.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75개 대학의 평가기준 현황분석과 전국 고등학교 379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고교 교사 및 장학사, 대학의 입학관계자와 교수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 및

FGI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새로운 평가요소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등을 도출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존 연구의 4가지 평가요소와 15가지 평가항목을 3가지 평가요소와 10가지 평가항목으로 간소화하였다.

평가요소는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으로 변경하였다. 평가요소 네 가지 중에서 ‘발전가능성’이 다른 요소와 다소 중첩된다는 점과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해결력’ 항목이 전 영역에 걸친 상위의 개념인 점을 고려하여 다른 요소의 평가항목과 세부평가내용에 포함하였다. ‘전공적합성’이 학생들에게 희망 전공에 맞춘 활동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지나치게 경험을 협소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계열적합성으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학보다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고교의 관점을 반영하여 ‘진로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인성’은 교육적 의미가 높지만 추상적이고 평가가 어렵다는 점과 전형자료 축소로 평가내용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여 개인적 특성보다는 공동체의 관계 측면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에서 ‘공동체역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평가항목에서는 기존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탐구활동이 중첩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학업역량 내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으로 하고,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학습에서 학생의 과목선택이 중요해지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하고



세밀한 잣대를 마련하기 위해 ‘진로역량 내 전공(계열) 관련 과목 이수 노력과 성취도’를 분리하고 전공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개념을 확장하였다. 기존 인성에서 개인적 특성이 강하고 평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도덕성을 제외하고 공동체 내의 관계 역량을 반영해 발전가능성에 있던 리더십을 공동체 역량에 포함하고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여 ‘공동체역량 내 협업과 소통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준수, 리더십’으로 개편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공동연구에 참여한 건국대 · 경희대 · 연세대 · 중앙대 · 한국외대 5개 대학의 2024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실제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과 전형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활용될 수도 있다. 이번 개편 안이 전국 여러 대학으로 확산되어 유사한 공통 평가요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부종합전형의 표준화에 기여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학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학업역량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

1 학업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와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

2 학업태도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3 탐구력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공동체역량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1 협업과 소통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며,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2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3 성실성과 규칙준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

4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진로역량



진로역량

자신의 진로와 전공(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

1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2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취 수준

3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2016)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공통 기준과 용어표준화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입학전형센터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2018)
대입전형 표준화방안 연구-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서울: 건국대학교 입학전형센터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2018)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서울: 건국대학교 입학전형센터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교육부 (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2019. 11. 28. 보도자료)

교육부 (2020)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 발표. (2020. 5. 29. 보도자료)

백순근·신안나·김연경·손주영·윤승혜 (2017)
고등학생용 여섯 가지 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30(3), 363-395.

윤영·백아롱 (2021)
고등학생의 자기관리역량과 공동체역량 관계에 대인관계 및 배려의 매개 효과 검증: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8(6), 261-288.

한국교육개발원 (2015)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조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보고RR 2015-31.

전국 75개 대학 입학 홈페이지, 모집요강 및 안내책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연구책임자 임진택 (경희대학교)

공동연구자 이정림, 방유리나 (건국대학교)

이승아, 조민경 (경희대학교)

박정선, 안미연 (연세대학교)

차정민, 장준호 (중앙대학교)

김창민, 이수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협력진

강세웅(전라북도교육청)	강경진(서강대학교)
김대현(서귀포고등학교)	권영신(성균관대학교)
김용진(동국대학교부속여자고등학교)	김경숙(건국대학교)
박문수(청원여자고등학교)	김민자(전남대학교)
박영출(남해해성고등학교)	김숙기(인하대학교)
백상철(충청북도교육청)	김영배(송실대학교)
신성용(한민고등학교)	김정현(경상대학교)
안성환(대진고등학교)	손선열(경북대학교)
오세종(인일여자고등학교)	송연화(서울여자대학교)
오창민(충청북도교육청)	양성관(건국대학교)
윤태영(서울특별시교육청)	유은선(충북대학교)
이성준(부산광역시교육청)	이대희(국민대학교)
이완구(충청남도교육청)	이미경(전 서울여자대학교)
이재하(중일고등학교)	이상지(계명대학교)
이정형(배재고등학교)	이재원(동국대학교)
이혜림(광주광역시교육청)	이주원(충남대학교)
정영현(경상여자고등학교)	조희권(전북대학교)
조만기(판곡고등학교)	최미정(고려대학교)
주영진(세종대성고등학교)	허정은(부산대학교)
홍정민(고양국제고등학교)	

발행일 2022. 02. 18

발행처 경희대학교 입학처 입학전형연구센터

문 의 02-961-0028

*제작 _ 디자인여름 (02-421-1452)

※ 이 책의 내용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new 학생부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공동연구